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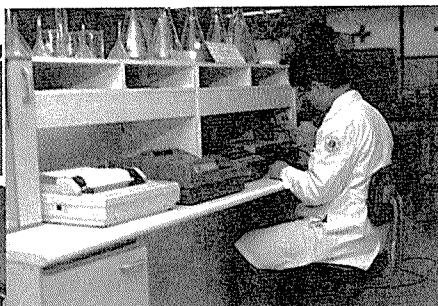


건강을
지키는 **현장**

건협 부산지부, AIDS 항체 양성자 발견

AIDS검사와 예방의 중요성 실증

AI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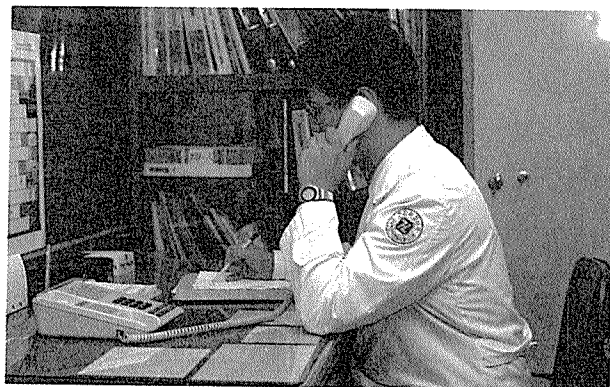


인류 최대의 적 AIDS, 20세기의 페스트 AIDS... 그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게 할 만큼 AIDS는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가까이에 와 있고 그 심각성이 날로 더해지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는 "조심하는 것"만으로는 완벽한 예방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조심하는 것이 최선의 AIDS예방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AIDS 검사를 받는 일은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나 싶다.

건협 부산지부에서 AIDS검사를 받고 항체양성 판정을 받은 K씨의 경우는 AIDS 검사의 가치와 예방의 필요성, AIDS 감염의 엄청난 위험성 등을 실증해 주는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건협 부산지부직원에서
종합건강검사를 받던 중
AIDS 감염 사실을
발견한 K씨는 현재
관할보건소와
주소지 보건소의
관리를 받고 있다.

• 건협 부산지부에서 종합건강검사 중 발견

지난 9월 27일 K씨 종합건강검사를 받기 위해 건협 부산지부 직원을 방문했다. AIDS 검사도 그 종합검사 중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검사 결과 K씨의 AIDS 항체 양성반응을 발견한 건협 부산지부 검사소의 강훈 대리와 박춘희씨는 이 사실을 즉시 김성대 검사소장과 하성미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K씨가 재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재검 결과 역시 항체 양성임을 발견한 건협 부산지부는 즉시 동래구 보건소와 부산 보건 환경연구원에 검체를 보내어 검사를 의뢰했다. 이 검체는 다시 서울의 국립보건원에 보내졌고, 10월 21일 항체 양성자라는 판정이 국립보건원으로부터 내려졌다.

K씨는 현재 관할 보건소와 주소지 보건소에서 추적 관리를 받고 있다.

• 성교에 의한 국내 감염

1961년생의 남자인 K씨의 직업은 선장. 직업이 직업인 만큼 그



AIDS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감염 위험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 일, 그리고 정기적인 AIDS 검사 등이 AIDS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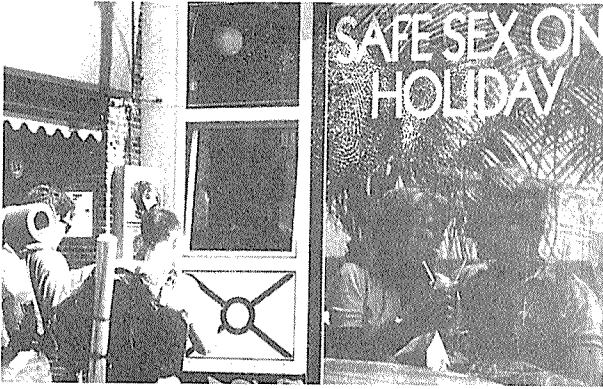
는 해외에 나가는 경우도 많고 다양한 성관계 경험도 많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가 답한 설문에 의하면 그는 외국에서가 아닌 국내에서의 성관계에 의해 감염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AIDS 환자가 발견되던 때만 하더라도 국내 감염은 사실상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불과 몇년 사이에 국내인 사이에서 전염이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니 걱정부터 앞선다.

• AIDS, 강건너 불이 절대 아니다

귀가 따갑도록 듣는 이야기겠지만, AIDS는 이제 강건너 불이 결코 아니다. 남성의 70% 이상이 AIDS 감염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태국의 예와 비교할 때, 전체적인 비율이 작다고 해서 안심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단 1%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이 곧 기하급수적 수치로 돌변할 수 있는, 내 발등의 불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AIDS에 대한 두려움도 예방의 필요성도 그다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물론 한창 AIDS의 심각성이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될 때는 사소한 피부병 조차도 AIDS가 아닐까 하고 겁낼 정도로 모두들 두려



이제 우리는 AIDS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주체적이고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

움에 떨어졌지만, 점차로 늘어나는 AIDS 항체 양성자, 끝없는 타락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 성 문화 등을 볼 때는 그것도 한 때였던 것 같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앞선다.

• 모두 AIDS를 올바르게 알고 예방해야...

이제 우리는 AIDS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다 주체적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우선 AIDS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지나친 두려움도 무관심도 AIDS 예방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음으로는 AIDS에 감염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수혈을 통한 감염 등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심하는 것”으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AIDS 검사를 하도록 한다. 검사는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내 자신을 AIDS라는 엄청난 불치병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